



재능기부에 나선 건축사..
광주 남구청과 설계 업무 협약 맺어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제2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익상 건축사(주)이건종합 건축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11월 5일(수) ~ 11월 9일(일) / 아시아문화전당



〈특별기고〉
개발행위허가의 이중규제로
행정절차와 국민의 경제적비용이 가중

시론 02

단체장의 수준이 당해 지자체의 품격을 좌우한다 _ 서재형

기획 03

2014년 가을, 광주에서 만나보는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설계경기 04

전라북도 장수군 청사 증축 설계경기

사람 & issue 05

"건축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것" _ 장동원

동양건축 06

동아시아의 목탑(木塔)_2부 >> 일본 - 목탑의 나라, 도래인과 오종탑, 삼중탑 _ 신웅주

螢窓雪案 07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광이(일에 미친 광수)" 가 되었으면 합니다" _ 남해경

NEWS 08~10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

장수군 청사 증축사업 건축설계공모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 길 환 건축사

인터뷰_사람&issue

광주/동원 건축사사무소 장동원 건축사



인터뷰_螢窓雪案

전북/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단체장의 수준이 당해 지자체의 품격을 좌우한다.



건축사 서재형
건축문화사랑 편집인
건축사사무소 선 대표
archiseo@nate.com

본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애독자 여러분들의 정책적 제안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선 이후에도 그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봄을 알리는 꽃들은 피는 게 싫더니 이내 하나씩 저가고,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들이 그 거리를 대신 메우며 요란하게 나부끼고 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절로 오버랩 되는 시절이 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도 겪으며 성과도 있었고 폐해도 적지 않았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자체도 나타났고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지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 흥청망청 세금을 써대는 지자체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효과에 의해 그 대부분의 성패는 단체장의 의식과 역량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우리의 관심 대상인 도시와 건축에 대한 부분도 예외는 아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치적을 쌓아 영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특히 유혹적인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투자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체장의 수준에 따라 도시환경과 건축문화의 품격이 다른 분야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성과보다는 부정적인 폐해가 더 많이 양산되는 분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과거의 사례와 경험에서 우리 시민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사업은 단체장들이 저질렀지만 그 결과에 대한 혜택이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망각한 난개발도, 혈세 낭비로 인해 지자체에 남겨지는 빚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상처와 불화와 불편함 등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실례가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사업과 새빛동동섬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아닐까 싶다.

도시·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요구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이 가장 대접받는 시기가 바로 선거철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민원도 증가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개혁 요구도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더러는 이기적인 요구도 있고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자들은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마저도 경청하듯 제스처를 취하거나 공약들을 남발하기도 한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런 풍경은 식상할 정도로 뻔한 스토리다.

그동안 건축인들도 선거철마다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행복한 주거환경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었고 제도개선도 요구했었다. 건축전문가에 대한 위상과 그에 걸맞은 대우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부분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다. 일부는 눈에 이익에 급급했었고, 후보자에서 당선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단체장들에게 주어지는 허가권한과 감독권한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조차도 분명코 바뀌어야 한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떳떳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속칭 업자의식과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전문가로서의 자존감도 회복해야 한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행복한 주거환경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지켜내고 보장해줘야 하는 사회적 책무 또한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어찌 도시를 조성하고 건축문화를 창달하는 데 앞장서는 전문가라 할 수 있겠는가!

건축인의 권리는 곧 도시의 권리이자 시민의 권리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건축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도시의 문제이자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건축인들이 창조하고 조성해 놓은 곳이 곧 건축이고 도시이며, 그 공간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쉼터도 출퇴근길도 일터도 곧 건축이고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인들의 권리는 곧 도시의 권리이자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선거철이면 후보들의 정책검증에서 도시와 건축에 관한 공약이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애독자 여러분의 정책적 제안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선 이후에도 그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시민 모두에게 있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는 호소와 함께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는 당연한 얘기로 매조지 한다. ☐

2014 MIDAS

Technical CONCERT

출시 3년만에 건축설계 업무의 변화를 만들어낸 midas eGen이
지난 2013년 10월 출시된 midas Drawing과 함께
건축설계업무 두번째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구조도면 자동생성 프로그램 midas Drawing은
2014년 2월, 부재별 물량산출기능을 탑재하여
또 한번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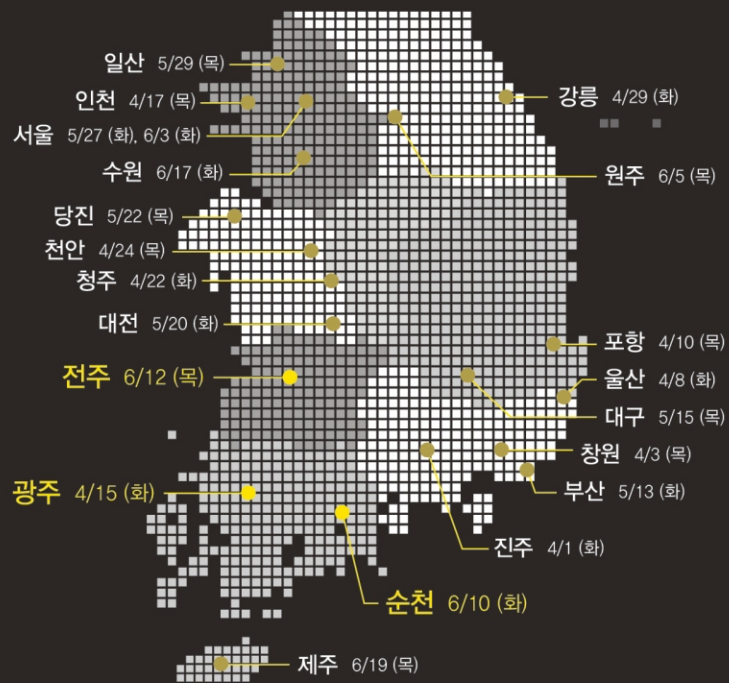
www.MidasArchi.com/concert

본 기술 콘서트는 건축사실무교육(자기개발분야 1시간)이 인정됩니다.

행사 관련 문의

이혜린 031. 789. 4268 / hrlee@midasit.com

이정재 031. 789. 2019 / jjlee@midasit.com



2014년 가을, 광주에서 만나보는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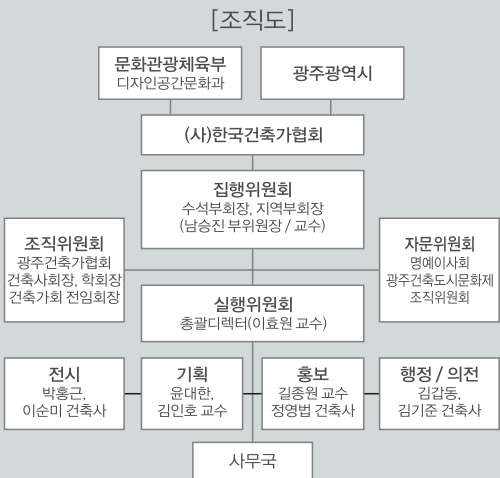
- (사)한국건축가협회 주최,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주관, 'cultivate'라는 주제로 개최
- 오는 11월경, 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지역 일원에서 진행,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와 병행



올 가을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축문화축제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건축가회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오는 11월 경 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지역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건축가회 정광민 회장(건축사사무소 서로/건축사)은 “현재 기초적인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중앙조직과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세울 예정이다”며 “원래 문화제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회(서울)의 부회장급 회원이 임명되는데 이번에는 이 지역 회원인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문화제 전시·행사 총괄 디렉터)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건축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많은 협조와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광주건축가회에서 제공한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기본계획 내용이다.



이번 문화제 전시와 행사를 주관하는 총괄 디렉터로서 건축문화제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



‘cultivate’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2012 KIA Convention & Exhibition)
- ▶행사기간 : 2014년 11월 5일(수) ~ 11월 9일(일) [5일간]
- ▶행사장소 : 아시아문화전당(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
- ▶주 최 : (사)한국건축가협회
- ▶주 관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 ▶공식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2. 행사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건축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광주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건축과 도시의 명암을 조명하고, 미래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로 삼고,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함
- ▶추진목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의 정체성과 비전 제시
 - 삶의 저변에 깔린 건축과 문화의 관계성 재인식 및 새로운 도시건축의 구성
 -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건축도시 구성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축제의 장

3. 조직구성

- ▶위 원 장 : 전체행사 총괄(사업예산 마련 및 전시행사 장소 섭외)
- ▶부위원장 : 위원장 업무 협의 및 광주건축도시문화제와 협력 방안
- ▶실행위원회
 - 총괄디렉터_ 주제설정 및 전체 행사프로그램, 행사 세부계획 수립

- 전시담당_ 일반전시 및 특별전시의 기획 및 실행
- 기획담당_ 광주의 특별전시의 기획 및 세미나, 심포지엄 기획 및 실행
- 홍보담당_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매체 연계방안, 관련 인쇄물 기획 및 제작
- 행정담당_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대관업무 수행, 개막식 의전 등

4. 주요행사 내용

▶(사)한국건축가협회(중앙회, 지회)

행사명	행사내용
대한민국건축대전 : 일반공모전	주제 : 작은 동네/건축 입상작 및 입선작 전시 (80~100 작품)
올해의 건축가 100인전	(100여 작품)
올해의 건축 BEST 7	
한국건축가협회특별상	협회사, 특별상 패널 및 모형전시(10여 작품)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공간문화대상 수상작 패널 전시(5~6여 작품) * 문화부장관 시상
젊은건축가전	젊은 건축가 당선자 5인 전시회 * 문화부장관 시상
건축과 문화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본 광주의 문화와 건축
cultivate[kʌltəvèit]	‘발굴’을 주제로 한 광주건축 100인전
국내건축가 초청강연	유규승 / 유홍준
국제심포지엄	‘건축과 문화’를 주제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발전전략과 건축의 역할”
건축투어	아시아문화전당 투어 / 양림동 근대건축유산 투어, 광주 Urban Folly 투어, 5월길 투어 등, 2014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계 투어 등

▶광주건축도시문화제(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지회)

행사명	행사내용
광주광역시 건축상 전시	2013년 사용 승인된 우수건축물 선정 전시
광주현상설계당선작 전시회	광주·후쿠오카 건축사 우수작품 선정 전시
광주광역시 건축대전	입상작 및 입선작 전시(30~40여 작품)
전국건축공모전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주관하는 공모전
해외건축가 초청강연회	시민·학생들에게 대상으로 건축관련 강좌개설
대학생 우수건축 작품전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우수작품 선정 전시
해외건축가 초청강연	이탈리아 건축가 섭외 중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도시경관을 주제로 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그림공모 및 입상작 전시

www.abmarch.co.kr

abm
[주]에이비엠그린텍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475(애플타워 601호)
Tel. 062.521.8715~6, Fax. 062. 521.8717

광주지사 / 지사장 이 기 성

Mobile. 010-8507-1518
E-mail. Leegs@abmarch.co.kr

ABM GREENTECH Co.,Ltd.

4_ 설계경기

장수군은 안전문제가 제기된 노후청사를 철거하여 청사, 군민회관, 평생학습관, 지하주차장등을 건립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의암송 주변과 주차장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 및 문화재 보존대책을 마련하고자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이번 건축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장수군 청사 증축 설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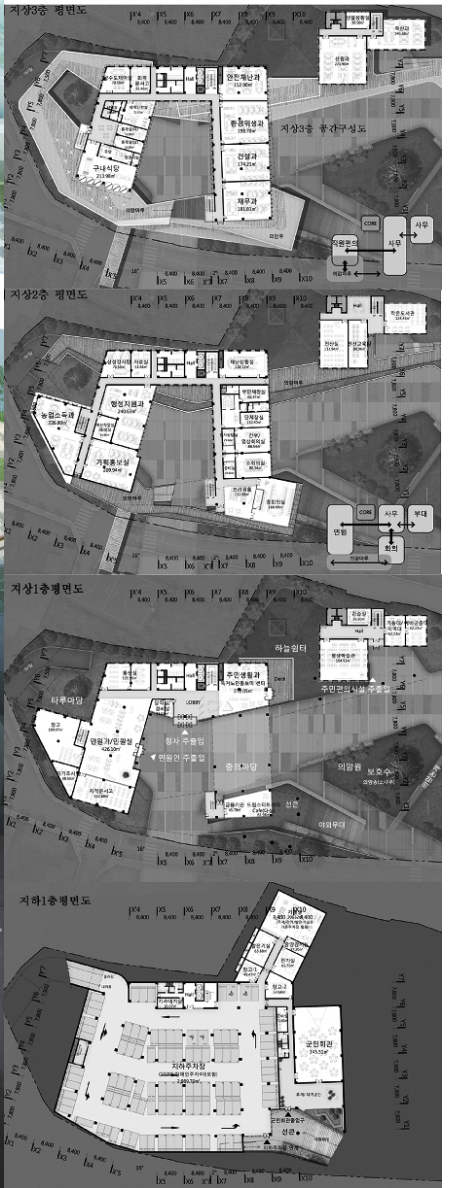
발 주 처 : 전라북도 장수군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 공모(전국)

당선작 : (주)길건축사사무소	이길한 건축사
우수작 :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조영돈 건축사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김경옥 건축사
가 작 : (주)사간건축사사무소	최나진 건축사
협의하여 미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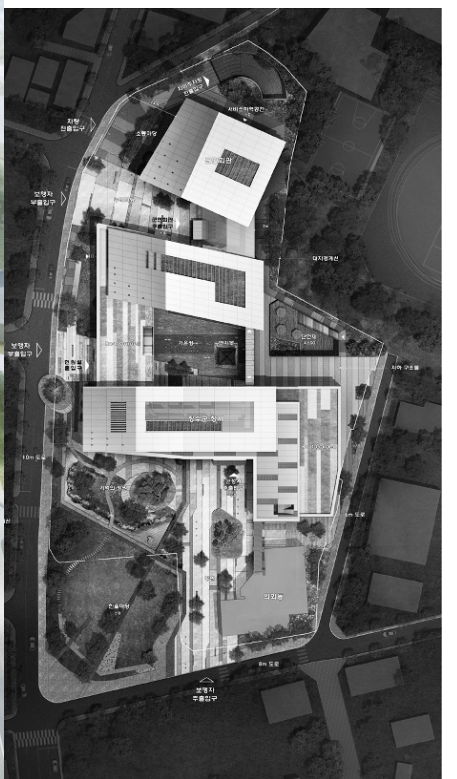
당선작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 길 환 건축사



우수작

조영돈 건축사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김경옥 건축사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것”_ 장 동 원 건축사

현재 장동원 건축사는 광주지역 건축사회에서 청년층과 중년층 사이를 잇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향후 광주지역 건축계를 이끌어갈 인물 중 한사람으로도 조명 받고 있고, 마침 올해 2014년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에 까지 선출되는 등 이후 활동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지난 3월 28일 편집위원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나주송월동 도시형생활주택



남양주 포스코아파트

먼저 광주건축사회 2014년 감사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 1년 정도 광주건축사회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배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저에게 조언과 지지를 해주신 회원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같이 후보자로 나선 건축사님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당시 약속했던 대로 회원님들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광주건축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설계입문, 학업 등)

섬세한 성격에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건축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광주 서강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후 구조설계부터 배웠습니다. 설계입문은 동기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건축사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주경야독한 결과 건축사가 됐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에 대해

건축은 구조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업에서는 설계하는 분만을 건축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번 작품들 마다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타협을 통해 작품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운 때와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면?

건축사로서 항상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랑스롭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짓기 위한 사람... 내 회사를 짓기 위한 사람...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 등등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 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이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랑스롭습니다. 건축사로서 부끄러운 때는 돈이라는 물질적인 관계

로 건설업자들에게 끌려 다닐 때가 가장 부끄럽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과 공간의 소통에 주목한 한국 현대문예부흥의 선구자 공간 건축의故김수근 건축사를 존경합니다. 20세기 중후반 어려운 사회여건에서도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열정적인 삶을 통해 한국현대 문화예술사를 새로 쓴 건축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 건축사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현업을 접어두고 유럽 여행(체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할 때가 가장 생각합니다.

선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건축은 희망입니다. 희망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학업에 몰두하여 진일보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이제 조금씩 건축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을 보지 못하고 숲을 바라본 격이라 할까요. 이제는 조금씩 산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비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마음이 통한 분들과 같이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물론 광주건축사회 감사로서의 직분 또한 다하고자, 그리고 회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신남 건축사기자
정리 : 박승국 전담기자 gikira@empal.com



광주/동원 건축사사무소 장동원 건축사

약력

- 1984년 서강고등학교 졸업
- 1991년 조선대학교 건축과 졸업(학사)
- 2000년 건축사 면허취득
- 2002년 동원 건축사사무소 개설
- 2005년 조선대학교 건축사 동문회 총무
- 2006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건축위원회 위원
- 2013년 석명해체 고급감리원 획득
- 조선대학교 건설최고경영자 대학원 재학중
- 2014년 광주건축사회 감사



▲ 편집위원들과의 인터뷰



▲ 건축사들과 함께 한 해외여행

장동원 건축사가 건축 설계에 참여한 대표작품들



송정동 도시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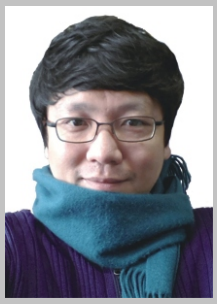
일곡동 빌딩 - 주경



장산초등학교

동아시아의 목탑(木塔)_ 2부

» 일본 - 목탑의 나라, 도래인과 오중탑, 삼중탑



신 응 주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wjshin@chosun.ac.kr

1부 : 한국 - 호국불교의 황룡사, 구산선문의 쌍봉사 - 2014년 3월 게재
2부 : 일본 - 목탑의 나라, 도래인과 오중탑, 삼중탑 - 2014년 4월
3부 : 중국 - 1000년의 세월, 천하제일의 불궁사 석가탑 - 2014년 5월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신응주 교수는 전통건축과 문화재 보존·복원에 관한 전문가로 현재 대학에서 동아시아의 건축문화와 한국건축사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부 : 일본-목탑의 나라, 도래인과 오중탑, 삼중탑

도래인과 일본

1997년 발간 즉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총,균,쇠(Guns, Germs, and Steel)’의 2003년 개정판에는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논문이 추가되어 실려 있는데 현대 일본인의 조상에 대한 고찰이 한국인으로 결론지어져 우리에게도 각별하게 와 닿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인과 야요이인의 유전자 분석, 고구려 단어와 일본어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성장기를 함께 보낸 쌍둥이와 같다’고 저자는 말한다.

일본의 고대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사에 서 중국의 그것과 비교될 만큼 비중이 크다. 현재 상이한 견해와 사론이 난립한 가운데, 허구이론 뿐만 아니라 민족적 감정대립까지 제기되지만 일본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정설적인 사실’로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백제의 문화이다.

백제의 성왕[聖王, ? ~ 554]대에는 일본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사찰 건립이 활발해져 일본 최초의 가람형식을 갖춘 아스카데라[飛鳥寺]가 건축된다. 백제에서 선진 기술을 가지고 건너간 승려, 사공(寺工), 와박사(瓦博士)등이 활약하고 일본 최고(最古)의 아스카대불[飛鳥大佛]은 백제계 도래인 구라쓰쿠리노 도리[止佛利師]가 제작한다. 이 사실은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에서 출토된 기와와 매우 흡사한 수막새가 아스카데라에서 출토되어 잘 증명해 준다.

호류지[法隆寺]에는 백제관음상(百濟觀音像)과 함께 구세관음상(救世觀音像)이 있는데 ‘성예초(聖饗抄)’라는 고대 일본의 문헌에 의하면 ‘백제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의 모습을 그리워하여 만든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호류지는 백제와 일본의 밀접한 교류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중층(重層) 그리고 층탑(層塔), 중탑(重塔)

중층은 중첩의 중(重)과 커의 층(層)에 대한 복합 의미로 전통목조건축에서 바닥구조의 적재에 의해 수직적으로 높아진 구조나 형태를 의미한다. 미묘한 차이지만 형태와 기능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의 목탑에는 상이하게 적용된다. 중국은 지붕과 처마를 뜻하는 중옥(重屋), 중첨(重檐)의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일본은 중(重)의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일본 목탑의 대부분은 3칸의 정방형 평면구조로 규모가 협소하고 상층의 축조가 불가능하여 오르내릴 수 없으므로 층은 배제된다. 반면 한국은 각 층이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 뿐 만 아니라 지붕이 중첩되고 내부가 상하로 트인 경우도 층으로 명명한다. 목탑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중탑(重塔), 한국은 층탑(層塔)의 용어가 사용된다.

아스카[飛鳥]시대와 하쿠호[白鳳]시대의 목탑

불교의 전래와 함께 일본으로 전래된 것은 목조건축 기술의 결정체인 목탑이다. 아스카시대 초기에는 아스카데라, 다치바나데라[橘寺], 시텐노지[四天王寺], 츄구지[中宮寺] 등에 목탑이 건축된다. 이들 중 스이코[推古]천황 재위 중인 597년에 최초로 아스카데라의 목탑이 백제의 장인에 의해 완공된다. 한편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에는 아스카데라의 목탑보다 10여년 빠른 목탑의 기록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아스카시대와 하쿠호시대를 거치면서 야마토[大和]를 중심으로 사찰과 목탑이 건축된다. 호류지의 오중탑(五重塔)과 호키지[法起寺]의 삼중탑(三重塔)이 하쿠호시대의 대표적인 목탑이나 아스카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일본 최고(最古)의 탑이다.

710년 헤이조쿄[平城京]로 천도한 이후의 덴페이[天平]시대에는 야쿠시지[藥師寺]의 동탑(東塔)이 건축된다. 역시 이전 시대의 양식인 하쿠오 양식이다.

당시 일본 목탑의 주류는 오중탑과 삼중탑이나 가끔 구층탑의 건축도 확인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쿠다라노오데라[百濟大寺]와 이후 다이칸다이지[大官大寺]에도 구층탑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남아있지 않다. 특히 쿠다라노오데라의 구층탑은 높이가 100m에 육박했다고 하나 신빙성이 부족하다.

덴페이[天平]시대의 목탑

덴페이시대에는 도다이지[東大寺]의 칠중탑을 시작으로 고쿠분지[國分寺]에도 칠중탑이 건립되어 전국으로 퍼지게 되나 이 시기의 칠중탑들은 현존하지 않는다. 이 시기의 목탑 중 현존하는 것은 다이마데라[當麻寺]의 동탑이 있는데 건립연대가 분명하지 않지만 양식으로 보아 8세기 말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된다.

그 외에 1/10의 축척을 갖는 모형탑으로는 720년에 제작된 카이류오지[海龍王寺] 오중소탑(五重小塔)과 8세기 후반에 제작된 간고우지[元興寺] 오중소탑이 있다.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실물의 목탑은 비바람으로 훼손되어 수많은 개보수를 통해 원래의 모습이 변형되지만 실내에 보존되는 이 소탑들은 제작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헤이안[平安]시대와 이후의 목탑

헤이안시대의 목탑으로는 9세기 초에 건축된 무로우지[室生寺] 오중탑이 유일한데 1998년 태풍으로 큰 손상을 입고난 후 복구된다. 이전의 목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히와다부키[檜皮葺, 편백나무의 껍질을 촘촘히 포개어 만든 지붕]는 주변의 풍부한 재료를 이용해 새롭게 시도된 방식이다.

헤이안시대 후기에는 진언종(眞言宗), 천태종(천태종)사원에서 주로 건립된 다보탑(多寶塔) 형식의 목탑도 생겨난다. 헤이안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목탑이 건축되었으나 그 외형과 양식에는 큰 변화가 없이 현재에 이른다.

일본 목탑에 남은 도래인의 흔적과 우리의 과제

부여에서 출토된 청동소탑편(靑銅小塔片)은 백제계 목탑의 형태를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기둥이나 창은 물론 난간, 기와, 처마 밑의 서까래 수에 이르기까지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다. 특히 공포 형태는 일본 최고의 목탑인 호류지 오중탑의 기법과 매우 흡사하다. 이 기법은 일본에서도 호류지와 그 주변 건축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백제의 흔적이 깃든 유물이다.

다마무시노 즈시[玉蟲麝子], 옥충주자로 더 알려진 아스카 시대의 조각품도 도래인과 호류지 목조건축 기법의 원형을 제시해 주는 유물이다.

한반도 목탑의 원형 고증을 위해 고대의 문화전달과 정상 가장 늦게 수용된 일본의 목탑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기록에만 수없이 존재하는 우리의 목탑이 실물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스카시대 이후의 일본 사찰건축이 기록과 유적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백제 또는 삼국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고대 사찰과 목탑의 모습을 전해주는 목조건축을 단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목탑을 포함한 고대 건축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해본다.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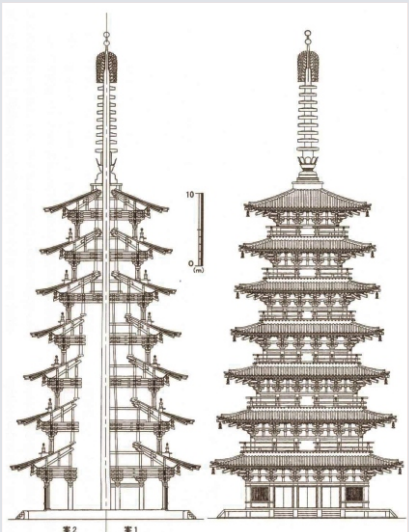
▲ 호류지[법릉사] 오중탑



▲ 호키지[법기사] 삼중탑



▲ 아쿠시지[약사사] 삼중탑



▲ 도다이지[동대사] 칠중탑 복원도, 하코자키 카즈히사 안

▼ 카이류오지[해룡왕사] 오중소탑



▲ 무로우지[실생사] 오중탑



▲ 부여 출토 청동소탑편

“현재 건축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시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광이(일에 미친 광수)’가 되었으면 합니다”_ 남 해 경 교수

대한민국 한옥건축교육의 메카 전북대학교에서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해경 교수를 지난 3월 27일 전북대에서 편집위원들이 만났다. 이번 4월부터 전북지역 건축학계를 이끌어갈 대한건축학회 전북지역회 장으로도 취임하게 됐다는 남해경 교수는 우리나라 건축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건축인들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남해경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학자로서 걸어오신 길(학업 과정/기타 사항 등)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친 후 일본 동북대학에서 약 2년간의 연구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전남에 있는 사립 대학에 있다가 2003년부터 모교인 전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연구 업적 또는 관심분야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내용은 설계방법론과 우리나라 민가를 접목시켜서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CAD를 도입하여 민가건축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전라북도 지방의 셋집을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전라북도 지방의 주거문화산물인 한옥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교육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널리 알리고 보급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비전 또는 발전방향(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학회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4월부터 제가 건축학회 전북지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선배 학자님들이 이루었던 업적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건축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을 두고 싶은 것이 건축인의 권익옹호입니다. 최근의 경제현실로 인하여 지방의 건축경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느끼시겠지만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건축영역의 업무를 다른 분야에 빼앗기고, 건축인들이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현실은 중앙에 비하여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인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문제인데요. 우선 지방대학으로서 시급한 문제가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관계, 건축학-건축공학의 인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곤 생각은 됩니다만 전북대학교는 오랜 동안의 고민 끝에 5년제 건축학을 잠시 보류하고 4년제 건축공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필요성이나 국제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5년제 건축학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건축의 영역이나 업무가 자꾸 축소되어 가는 국내의 현실, 특히 지방 건축계의 비참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이렇게 인력을 과잉공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5년제 건축학의 경우 기술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설계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4년제 건축공학 학생은 심지어는 도면조차 볼 줄 모르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건축이라는 학문의 성격이 첫째 종합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한쪽 방면으로 치우친 편협한 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점차로 정비가 되어 가겠지만 아직 5년제 건축학 출신들을 수용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증제도입니다. 건축학인증의 경우 초창기에 제가 인증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인증조건을 같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대학 건축학과 교육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인증의 경우도 기초적이라는 MSC과목(수학, 과학, 화학 등)으로 인하여 건축과 관련된 전공수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본래 공학인증이 기계나 전자, 전기 등의 학과에서 출발한 탓에 건축공학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점이 결국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 건축인들과 같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근 전북대학교 건축과가 한옥에 관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말씀...

이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옥에 관한 노력을 한지 한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작년엔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주거지가 관광지로 이렇게 성공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면에서 한스타일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한스타일 분야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인공인 한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옥마을에 관하여 건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친 집이나 새로 지은 집을 보면 본래 한옥마을의 한옥과는 다른 이질적인 한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건축인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학건축교육에서 한옥을 접한 것은 4년 과정중 1학기 주어지는 한국건축사 선택과목 하나뿐입니다. 이러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한옥교육을 실시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오늘날의 한옥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 한옥기술종합센터를 설립하고 한옥교육과 연구, 사회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4년 연속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한옥교육사업에 최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청소년 한옥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한옥캠프, 대학생 한옥캠프, 외국인을 위한 한옥교육, 평생교육원에서 일반인을 위한 한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옥교육프로그램이 15개 정도 됩니다. 더불어 고창캠퍼스에서는 9개월 과정의 한옥기능인력양성사업을 전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에 교양과목으로 <한옥개론>을 개설하고 건축공학과 교육과정에 <한옥건축>, <한옥설계>를 개설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원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옥학과를 설립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고창캠퍼스는 이전에 폴리텍대학이었던 자리를 73억원을 들여서 한옥교육과 목조건축교육기관으로 개조하였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으로는 인간문화재인 최기영대목장을 저희 대학 석좌교수로 모시고 있고 건축공학과 교수진과 전담 교수진, 전통 대목장, 건축사님들 10여 분이 교수로 계십니다. 한옥에 관한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일 것입니다.

건축인 또는 제자들에게 당부 한마디...

저희가 한옥교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교육에서 첫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건축계를 이끌고 계신 지도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인의 권위를 꼭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건축인으로서 자기 영역은 철저히 지킬 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권리 이전에 의무를 철저히 다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건축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건축의 영역은 건축인이 아니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축인의 자존심은 건축인이 아니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를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자들도요. 현재 건축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시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광이(일에 미친 광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건축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시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 건축인들이 다 같이 노력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 사회에 일조를 하는 건축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 건축사 봉사활동



▲ 건축사반 한옥 교육



▲ 외국인 대학생 한옥



▲ 청소년 한옥 캠프



▲ 치목 및 시공 실습 교육

개발행위 관련 이중규제로 행정절차 혼선과 국민의 경제적비용 가중

얼마 전 규제개혁을 주제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출연한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느낀 바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이중규제로 인해 건축주와 건축사에게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소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H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받은 내용에는 대지의 일부를 0.5M 이상 성토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위법건축사 업무정지등 처분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건축법위반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서가 당해 건축물을 설계했던 건축사에게 통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0.5M 이상의 성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수년전에 사용검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도 동일한 행정처분의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입장은, 0.5M 이상을 성토할 계획이었다면 건축법 제27조에 규정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때 대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다 점을 명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와 건축주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정관청의 주장은 입법 취지 및 그동안의 관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와 유사한 수많은 건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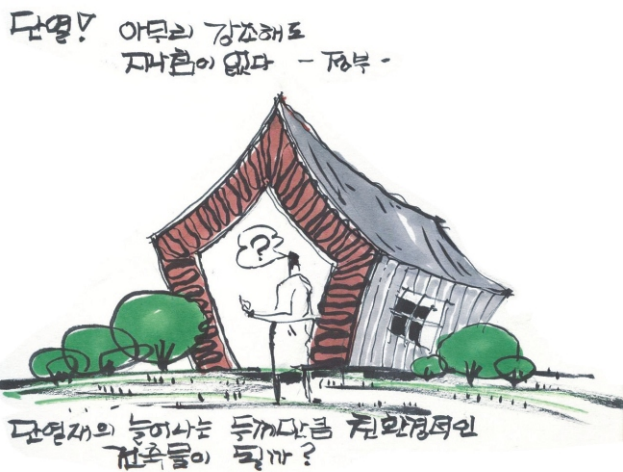
설계업무에서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내용 중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형질변경 항목에 근거법령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농지, 임야, 잡종지 따위와 같은 지목에 건축행위를 할 때 즉, 택지 이외의 토지를 택지로 만들 때만 ‘토지의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현실적으로도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장방문 조사는 [건축법] 제40조, 제41조 규정에 따라 토질조사와 대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지 할 수 있는 지내력 검토, 배수와 습지 그리고 매립지 등에 확인하여 지반개량 또는 대지의 안전조치를 하는 정도가 그 업무범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의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입법되어진 법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건축법]은 기존의 대지에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다는 것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조성이 완료된 대지 내에서의 절·성토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건축허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후폭풍으로 개발행위를 따로 받지 않은 건축물 중에서 많은 위법건축물이 속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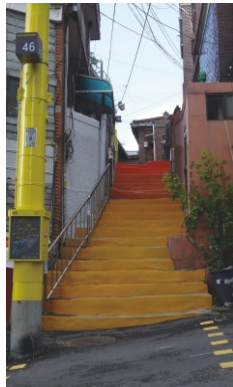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논지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일부 규정은 건축법과 중복되는 이중규제로 판단되며, 이처럼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은 행정절차이자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은 조속하게 개정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건축사 만평



심 상 봉 건축사 作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디자인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 서울 염리동 소금길 왼쪽(전) 오른쪽(후)

어두운 분위기의 달동네에 색깔을 입혔더니 범죄율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두침침했던 마을에 밝은 색을 입히고, 골목골목에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니 범죄율이 감소한 것이다. 흥미롭지만 약간은 의아함이 드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범죄예방디자인(또는 셉테드)이라고 한다.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물리적 환경설계로 범행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즉, 건축물 설계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적인 장소임을 표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용자의 동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일탈적인 접근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야기를 만들고, 안전성을 높인다. 이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건축을 하는 또는 할 사람들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율이 적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관해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 건축학부에 재학 중인 친구들에게 셉테드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모른다’였다.

“범죄예방디자인이 뭔지 알아?”, “성폭행 예방 속옷 같은 거 말하는 건가?”
“그럼 셉테드가 뭔지 알아?”, “아니. 그게 뭔데?”

“셉테드가 뭔지 알아?”, “아니.” / “그럼 범죄예방디자인은?”, “모르지.”

“범죄예방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 “응. 대충은 알아. 시각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것 등 이자나.” / “셉테드는?”, “그건 몰라”

-2014년 현재 건축학부에 재학 중인 학우들과 인터뷰

소금길 프로젝트는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감시카메라를 늘리고,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건축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그것들을 배우기 위한 앞의 의지와 앞의 기회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

— 지난 3월 21일 조선대학교에서... “건축문화사랑 신문” 감사패 수여받아



2014년도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1일 조선대학교 제1공학관 17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광주·전남지회 김지민 지회장(목포대학교 건축학과)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건축학회 서치호 회장(이상호 부회장 대독)과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하기주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광주·전남지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염한석 교수의 취임식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학술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전남대학교 이민석 교수의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발표와 조선대학교 김형기 교수의 건축재료, 조선이공대학교 김은정 교수의 건설관리 부분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김지민 지회장으로부터 지역건축문화 창달 및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올해 한시적 양성화

－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16일까지 신청해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지 1년 이상이 됐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17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 강제 이행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건축주는 오는 12월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건축허가권자인 각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전라남도, 제4회 한옥건축박람회 오는 10월 30일부터 개최

－ 전남 영암에서 ‘한옥, 그 오래된 미래’ 주제로 진행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오는 10월 말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회 한옥건축박람회의 주제를 ‘한옥, 그 오래된 미래’로 결정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위원장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에서 결정한 주제 ‘한옥, 그 오래된 미래’는 한옥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건축양식으로서도 우수성을 뽐낼 수 있는 주제로 박람회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제로 선정된 ‘전원생활, 한옥에서 답을 찾다’는 현실적이며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미지를 강력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한옥에 관심이 적은 젊은층을 겨냥해 맞춤형 부제로 ‘한옥스캔들’을 별도로 정해 젊은층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한옥건축박람회추진위원회는 올해 한옥건축박람회장을 최근 박람회의 전시 경향을 반영해 영상 위주로 꾸며 관람객이 쉽게 박람회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구들 시연, 온돌캠프 운영 등 한옥 관련 체험형 전시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며, 초종교, 대학생, 가족단위 등 폭넓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한옥관련 공모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옥건축박람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업·단체의 후원협찬을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키로 했으며 추진위원들부터 앞장서 재능을 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북대학교,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4년 연속 최우수교육기관 선정

－ 4월 중에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교육생 모집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단장 남해경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14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옥설계교육”을 6개월 동안 실시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전북대학교는 한옥기술종합센

터를 중심으로 3년 연속 교육기관에 선정되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육을 실시하는 6개월간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교육은 전국의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들이 받게 되는데 서울은 물론 강원도, 부산 등지에서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교육을 받아왔다. 심지어는 외국인 학생과 현직 교수도 정원 외로 선정되어 수업을 받아왔다. 교육은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실습교육은 고창캠퍼스에서 진행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한옥과 관련된 특강, 한옥이론교육, 한옥실습교육, 한옥마을 및 건축 답사, 한옥시공실습 등을 통하여 한옥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수진으로는 전북대학교 교수진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한옥관련 유명 교수진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고 인간문화제 74호인 최기영 대목장을 석좌교수로 임명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교육은 4월 중에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5월부터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 등록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초반을 운영하고 이전에 교육받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반을 개설하여 수준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전북대학교는 실습비를 지원하여 시공실습 결과물인 정자 건축을 실습이 끝난 뒤 버리지 않고 이를 캠퍼스 본부 앞과 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등에 건축하여 학교시설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에 기부하여 캠퍼스와 공공기관에 고전적인 품위를 더하도록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 군산시,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사업 최종 후보지에 포함

－ 오는 25일까지 현지평가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최종 대상지 선정



지난 4월 10일 전라북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모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군산과 전주, 군산, 완주 등 3곳 중에서 최종 배수 후보지 22곳에 군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 실사단은 이번 달 25일까지 군산을 시작으로 전국 22곳 후보지의 현장실사를 벌이게 되며, 이달 말쯤 심의 및 최종 대상지 선정을 하게 된다.

군산시는 근대건축물이 즐비한 해신동 월명동 중앙동 일원을 내항과 연계한 근대역사문화도시 재생사업안을 낸 바 있다. 당초 군산시와 전주시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공모했지만 전주시의 경우 이미 한옥마을 등 주변지역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고 이미 정부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점도 배제된 이유로 보인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일단 군산이 마지막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도와 정치권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과 차관, 도시정책관 등 주요인사에 도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해 건의하고 국토연구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평가기관을 방문해 설명과 건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며 2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Ⅱ 작품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진행

－ 4월 1일 ‘혁명의 교차로’를 시작으로 남광주 푸른길 공원에서 포창마차영업 행사 등



광주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광주폴리Ⅱ 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가 진행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인권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설치한 광주폴리Ⅱ 8개 작품에서 ‘프로그램 운영 파트너’와 함께 다채로운 시민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먼저 ‘혁명의 교차로’ 운영 파트너인 광주인권평화재단이 4월 1일 오전 11시 광주역 앞 교통섬 ‘혁명의 교차로’(에알와이즈만 작)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고 개막전 ‘광주 젊은이, 인권을 품다’에서는 청소년 모의 UN인권 이사회 토론회 모습, 이주민 학교 자원 봉사 활동 현장 사진 등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포장마차’(아이 웨이웨이 작)의 운영을 맡은 (사)푸른길은 4월 4일 남광주 푸른길 공원에서 남광주 상인들과 함께 ‘포장마차 영업 개시’ 오프닝 파티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놀이패 신명의 배우인 정찬일 씨 사회로 공연과 포장마차에서 만든 음식을 맛보는 시식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3월 28일에는 광주시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하는 광주학생독립회관 옆 골목 ‘투표’(렘 쿨하스·잉고 니어만 작)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현장 이벤트가 열렸다. 이날 다양한 홍보 활동, 설문조사, 100인의 투표인단 모집 등이 진행됐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선보인 광주폴리Ⅱ 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해 동시대 지역민의 삶과 함께 호흡할 것으로 보인다”며 활성화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전남 순천시, 2014 순천만정원 개장 앞뒤

－ ‘행복 창출’을 테마로 오는 4월19일 개막식을 갖고 20일 개장



지난해 국내 최초 정원축제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한 순천시가 오는 4월 20일 개장 준비에 앞서 정원 사진을 공개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 행사가 꿈의 다리, 호수정원, 바위정원, 나무도감원 등 56개 정원이 20km의 길과 연결되는 등 방대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 20일 ‘행복 창출’을 테마로 개장하는 순천만정원은 순천만~순천만정원~동천~봉화산 둘레길로 이어져 도시가 하나의 더 큰 정원으로 탄생하여 진정한 체류형 관광의 신상품 탄생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4월 8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신입 위원장에 윤익상 건축사(주)이건종합건축



지난 4월 8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정기총회는 회원 250명 중 119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4개의 부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부의안건 중 2013년도 수지결산안과 2014년도 수지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으며, 운영규정 및 세칙 개정(안)은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결했다.

특히 이날 관심이 집중된 위원 선출에서는 위원장에 윤익상 건축사(주)이건종합 건축사사무소), 위원에 심상봉((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안천수((주)건축사사무소 누리), 김도석(미르 건축사사무소), 김종철(영산이앤지 건축사사무소), 최승민(대진 건축사사무소), 김대영(인우 건축사사무소), 박신남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유림)가 감사에는 정상채(초석 건축사사무소), 장동원(동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선출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익상 건축사는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과 잘 협의하여 감리협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10주년 기념식 개최

— 지난 4월 12일, 광주상무시민공원내 축구경기장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가 지난 4월 12일 광주상무시민공원내 축구경기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원들을 비롯한 강남, 서초, 송파 건축사 축구동호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 이수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축구 동호회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묵묵히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동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광주건축사회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 회원들에게 감사과 축하함을 표하고, 건축사 한 가족으로서의 서로 간의 친선과 화합으로 광주건축사회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건축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0주년을 맞이한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는 대한건축사협회장기와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에서 여러 번의 우승을 거머쥔 지역 축구동호회로 잘 알려져 있다.

2014 꿈다락 토요문화 광주학교 개강

— 지난 3월 15일 전남대학교 공대2호관에서... 6월 21일까지 진행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광주지역 교육이 지난 3월 15일 전남대학교 공대2호관에서 개강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2012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주 5일제 수업과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업이 없는 토요일, 학교

밖에서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광주교육은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오는 6월 21일까지 총 8번의 강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심상봉 건축사,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로

— 지난 4월 초,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위촉식 가져...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심상봉 건축사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로 위촉됐다. 지난 4월 초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 받고 상임공동대표로서 활동에 나섰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04년 1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밝은 미래사회 기틀을 마련코자 창립됐다.

심상봉 건축사는 조선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과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평소 건축사로서 시민사회를 위한 역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한건축사협회, 2014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참가자 모집

— 오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 4월 20일까지 참가자 접수받아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력 배양과 건축에 관심을 가진 어린이들이 미래의 건축문화를 창조해나갈 훌륭한 건축사, 좋은 건축주가 될 수 있도록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4 어린이 건축창의 교실을 개최한다.

□ 행사개요

- (목 적) 우리 건축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력 개발 도모
- (일 시) '2014. 5. 23 (금) ~ 5. 24 (토) / 새마을 중앙연수원(경기 성남소재)
- (참 가) 초등학생(4~6학년) 120명, 대학생(건축학)봉사자 50명
- (선 정) 신청 동기 및 그림을 제출받아 우수 작품을 그린 학생 선정

□ 행사프로그램 안내

- (1) (건축창의 경진대회) 참가학생 120명을 8개조(팀)로 구성, 조별로 찰흙 등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를 하여 우수팀에게 시상
 - * 시상 3점(국토부장관상 1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장상 1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1점)
- (2) (명사 특강)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건축 이야기 상영 및 설명
 - * 김규린 건축사(건축사 사무소 좋은 집 대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
- (3) (현장 고수와의 대화) 재미있는 건축 구조, 원리 설명 및 질의·응답
 - * 조원용 건축사(건축커뮤니케이터 대표)
- (4) (한옥 체험 및 역사현장 답사) 목수 체험, 한옥 모형(1/3) 조립체험, 수원 화성 답사 등

□ 추진일정

- 참가학생 인터넷 신청기간 : 2014. 4. 3 ~ 4. 20
- 참가학생 그림 접수기간 : 2014. 4. 14 ~ 4. 28 (직접제출 또는 우편)
- 참가학생 선정 : 2014. 4. 29 * 발표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4. 30)
- 참가학생 행사계획 개별통지 : 2014. 5. 2
- ※ 5. 23(금) 08:50,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집결, 발대식 후 행사장 이동(버스)

2014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불가함)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돼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 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사전접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 실시
- 계획건축물부문
 - 작품주제 : “오래된 미래 나만의 우리”
 - 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작품계획안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3차 심사 실시
 - 1팀 3인 이내,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

작품접수

- 준공건축물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4. 6. 5(목)까지 09:00~18:00 ☎ kaa.kira.or.kr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4. 6. 9(월) ~ 6. 10(화) 09:00~18:00 시간임수
 -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계획건축물부문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4. 5. 26(월) ~ 5. 30(금) ☎ kaa.kira.or.kr
 - 1차 작품접수 : 2014. 6. 3(화) ~ 6. 4(수) 09:00 ~ 18:00 시간임수
 -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2차 작품접수 : 2014. 7. 15(화) 09:00~18:00 방문접수
 -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일은 추후 공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상 명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 상 (4점)	사회·공공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본 상 (4점)	사회·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시상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 계획건축물부문

-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최 우 수 상(3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우 수 상(8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입 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홍보실 홍보편찬팀 【Tel. 02)3415-6862~4】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 광주 남구청과 설계 업무 협약(재능기부) 맺어

－ 지난 4월 5일 남구청 상황실에서 최영호 청장과 안길전 대표(건축사)가 협약 체결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안길전 대표(광주건축사회장)가 지난 4월 5일 광주 남구청 상황실에서 최영호 청장과 설계 업무 협약을 맺고 재능기부에 나섰다. 이날 설계 업무협약식은 광주 남구 주월1동 노인들의 휴게 공간인 경로당 5개소를 자발적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주월 1동 거점경로당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자발적 설계기부 제안에 의거 개최됐다. 이의 협약에 따라 광주 남구청은 사업 수행에 따른 인허가 사항 협조 및 지원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관련 자료를 제공키로 하고,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부문 실시설계 성과품 일체 무상기부, 사업 수행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안길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건축사로서 직업적인 재능을 좋은 곳에 기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광주건축사회장직 또한 수행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많은 건축사회원들이 좋은 곳에 좋을 뜻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 변경(소재지)
 - － 이종순 건축사 / 공감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운로 310
 - － 조은식 건축사 / 유에스 건축사사무소(주)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50번길 55 303호(풍암동)
 - － 유형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원 광주 서구 화개2로 20번길 24-17 1층

- * 부고
 - － 김선영 건축사 / 일우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3월 17일 (월)
 - － 김영전 건축사 / 아도 건축사사무소 병무상 / 4월 04일 (금)
 - － 김기탁 건축사 / 칸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4월 07일 (월)

- * 결혼
 - － 안민순 건축사 / 원도 건축사사무소 자녀결혼 - 4월 19일 (토)

News 전남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 박종혁 건축사 / 바로 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시 사동로 93-1, 2층
 - － 오조영 건축사 / 서영 건축사사무소 전남 여수시 시청서 3길 7-7 2층

- * 변경(소재지)
 - － 장지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장건축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77-1, 2층
 - － 박준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공간 전남 광양시 광양읍 오성길 9-0, 2층
 - － 박병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민공간 전남 광양시 광양읍 오성길 9-0, 2층
 - － 김동찬 건축사 / 타워 건축사사무소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897(신안타운1동202호)

- * 결혼
 - － 천준필 건축사 / 유토 건축사사무소 본인결혼 - 3월 29일

- * 부고
 - － 이광영 건축사 / 리가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3월 29일

News 전북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 장종일 건축사 / 부일 건축사사무소 전북 남원시 시청북1길 13(도통동)
 - － 최형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일 전북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 13(이도리)

- * 재입회
 - － 김완중 건축사 / ㈜길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 14-3(효자동3가)

- * 변경
 - － 강창조 건축사 / 가산 건축사사무소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7(수성동, 2층)
 - － 권영욱 건축사 / 영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고봉로 244-1(영동동)
 - － 박광성 건축사 / 바우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5길 5-4(서신동, 건축공간이음 3층)
 - －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5길 5-4(서신동, 건축공간이음 2층)
 - － 최태규 건축사 / 다다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5길 5-4(서신동, 건축공간이음)
 - － 박현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빛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5길 12-21(중화산동2가)
 - － 양태화 건축사 / 어울림 건축사사무소 전북 남원시 시청로 51(향교동)
 - － 유기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뿌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소로 91(송천동1가)

- * 결혼
 - － 권영욱 건축사 / 영 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 / 4월 12일 (토)

News 광주·전남·전북 4월 지역축제 안내

- ▶04. 18 (금) ~ 04. 20 (일)까지 제7회 김제 모악산축제
- ▶04. 18 (금) ~ 04. 27 (일)까지 제7회 신안톨립축제
- ▶04. 19 (토) ~ 05. 11 (일)까지 제1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 ▶04. 26 (토) ~ 05. 25 (일)까지 제20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 ▶05. 01 (목) ~ 05. 06 (화)까지 제16회 담양대나무축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노근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4.03.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이에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강창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3.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임.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구조안전 확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여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조안전 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현행법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326호, 2014.03.21~05.01)

1.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공급 및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30세대까지 완화하고, 블록형단독주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한옥,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 등의 경우에는 50세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
나.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비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안 별표 2의2)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03.18)

1. 주요내용

-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됨
 - － 앞으로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됨
- ② 근린생활시설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됨
 -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 ③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광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오는 11월 개최되는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광주의 건축문화를...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건축문화 사랑

신선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여수지역건축사회	35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i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옛말 그른 데 없다.”

‘옛말 그른 데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소싯적에는 그 말이 고리타분하고 어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세상을 살아볼수록 그 말이 깊이 있게 다가온다.

십수 년 전 내게 와 닿았던 옛말은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라는 문구였다. 논문을 쓰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검색하고 연구하는 중에 발견했던 말이다. 나는 이 말을 자연의 위대함으로 받아들였었다. 산은 물을 넘지 못한다... 또한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 자연은 수십억 년의 시간을 거쳐 오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있다. 생태학적으로 표토 1cm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약 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연(自然)은 단어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 즉,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연의 지형과 줄기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 스스로 변화하게 놓아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새삼 되새기는 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이다. 10년쯤 지나면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강과 산도 변한다는 말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람은 늙고 싶지 않으나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 세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스레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어 간다. 한 때 ‘진리’였던 것도 시간에 의해 ‘진리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장(醬)이 오래수룩 맛이 좋아지고 풍부해지듯이, 사람도 오래수룩 많은 걸 경험하고 느낀다. 아프리카의 작가 함파테 바는 1960년 유네스코 연설에서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서재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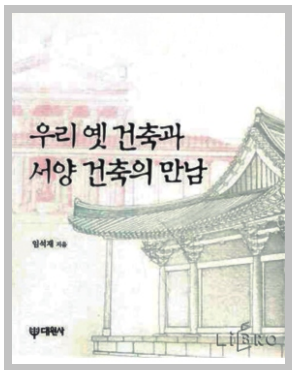
사람 개인의 의식은 쉬 바뀌지 않는다.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형성된 사람의 가치관, 취향은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세대가 교차됨에 따른 변화이지 개개인의 사람의 사고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다. 한 예로 내가 어렸을 적의 엄마들은 거의 뽀글이 파마를 하고 월남치마를 입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엄마들은 어렸을 때부터 입었던 청바지를 지금도 착용하고 헤어스타일은 단발을 하고 있으며, 그 때의 엄마들이었던 할머니들은 여전히 뽀글이 파마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때의 신세대들은 이제 누가봐도 중년인 것이다.

그렇게 개개의 요소들의 물성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새롭게 형성된 요소들에 의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게 되는 것 같다. 흐르는 세월을 붙잡고 싶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나이 먹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절로 변화하는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나의 변하기 어려운 근본적 성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옛말 그른 것 없음을 인식하면서....

책 소개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임석재(교수) 저 대원사 1999.10.30.

강형주
네덜란드 건축사



만약 외국인에게 한국 건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먼저 떠오르게 될까? 부석사의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병산서원의 만대루 등 고대시대부터 남아있는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떠올린다.

이 건축물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인의 숨결을 간직하면서 한국 고유의 의미를 발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건축인이 그 가치를 현대건축의 흐름 속에 그 의미를 잘 해석하고, 맥락적인 흐름을 유지·활용하고 있을까?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건축인들은 많은 서양 건축이 간직한 흐름을 적지 않게 답습하고 분별없이 수용하고 있다. 거시

적인 도시적 흐름에서부터 내부 공간에 대한 해석까지 서양의 문화와 개념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 가치가 부정적인 면만 있을 수는 없지만 한번은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 건축인이 현재의 언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옛 건축의 숨결과 감정적인 속마음을 끌어내려 한다. 우리가 현대건축에서 적용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단지 서양의 선진문물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좋은 대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용하고 적용하려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건축 흐름에 대세를 이루는 친환경건축이나 유기적 건축과 같은 양상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진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어야만 하고, 반대로 우리 것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가? 이는 우리 옛 건축에 대한 자심감 결여와 서양 건축의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인이 학교에서 배웠던 밀거름이 되는 한국건축사의 흐름과 다른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한국건축과 서양 건축의 개념을 비교하고 현시대의 한국 건축인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이 책의 개념 풀이 방식이 결코 완벽한 답이 될 수 없고 또한 개개인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건축인이 간직하고 있는 끓는 가슴에 도전과 세계적인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건축인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또 한국땅 안에서만 열망을 쏟아내지 않는, 전세계를 향한 야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서양인들은 우리 옛 건축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얻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 건축에 대해 아직까지 부족한 경험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 외에도 지은이는 계속적인 집필을 통해 서양건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과 한국건축이 가진 교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고 있다.

건축사 Gallery



삼학도와 아산이 보이는 풍경

캔버스위 유화 / 53cm x 45.5cm

영산강 굽어드는 목포항 그릴 때는
안목도 감아두고 감성도 버리리라
화폭에 흐르는 붓을 내가 따라 가리라 — 목포항 스케치 길에 —

임정구 건축사作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정(광주)

사진속 이야기



촬영장소 : 남해 다랭이마을 전경
수평선 아래
바다를 품에 안은 듯한
남해 다랭이 마을

김종철 건축사作
영산이엔지 건축사사무소(광주)